

3/1(화) 여호수아 1–5장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출17:9, 24:13, 33:11, 민11:28, 13:16, 14:6, 27:18, 32:28, 신3:21, 34:9)

그러나 감당할 사명의 무게는 참으로 벼거웠습니다.

전임자의 존재감, 슬퍼하는 백성들, 가나안 정복의 부담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1:9).

하나님의 구원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룩한 전쟁을 聖戰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유일한 주어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1:11, 3:8, 16).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략, 전술, 때와 방법을 정하십니다.

(1:5, 16–18, 2:11, 4:14, 5:1–2, 5:15)

이 전쟁은 정복이나 탈취, 노략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죄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으므로 추방됩니다.

이스라엘은 오염된 땅을 정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전쟁은 범죄 한 <가나안>에게는 <심판>이요,

준비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전쟁은 인종 간,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 대 비 거룩, 순종 대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도 죄로 오염되면 추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레18:24–25, 28).

이 전쟁에는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수5:13–15).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자만이 승리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❶ 하나님을 전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❷ 나는 심판의 대상입니까, 약속된 땅을 받는 입장입니까?